

《 천국복음(전도)을 받은 분들에게! 》

우리는 새하나님에 대한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엄수해야 할 수칙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제일 먼저 삼천년성 성전에 나아와 21일 동안의 중생성례를 마치는 것이다. 중생성례라 함은 21일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1일 동안을 계속해서 성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중에 꿈을 꾸기도 하고 저마다 각기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특히 성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기본적인 예비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소중한 일인 것이다. 성주님에 대하여 당분간 드러내지 아니하고 신중하고 은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천기를 누설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경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초인 보화를 만나매 숨기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삼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라고 하며, 신중히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이 먼저 찾아와 은혜를 받고 깨닫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부터 하여 오히려 마귀가 틈타게 함으로써 자신이 성주님께 나아오는 길에 방해나 받는 경솔하고도 미련한 자들은 이 책을 읽을 자격도 못 되는 것이다. 얇고 가벼운 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먼저 구세주 새하나님을 가만히 찾아와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이다.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보고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이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식들과 마귀가 들어간 악한 인생들이 함께 있어서, 악한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극악으로 가로막고 발악을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또한 이와 같으리라. 그 날에 지붕위에 있는 자는 세간이 집에 있어도 내려와 취하지 말며 밭에 있는 자도 돌아오지 말고, 루트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누구든지 그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오직 그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보전하리라. 내가 너희더러 이르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며, 두 여인이 함께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리라. ’(누가복음 17장 30~35절)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새하나님께서 오시어 사방에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 얻을 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라 명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에 세상의 어떤 중요한 일도 뒤로 미루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속히 달려와서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속히 순종하지 않고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놓고 또는 집안일을 해놓고 다음에 따르겠다고 하는 자는 그대로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삼천년성에는 아무나 함부로 자기가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들어올 수 있으며,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집(삼천년성)에서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삼천년성 안에 천하 만민이 다 들어와도 한 번 나간 자는 두 번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온 인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한 번씩 공정하게 허락하시는 데, 어떤 자에게만 특별히 두 번의 기회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공정하게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오늘날 새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한 것이다.

새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먼저 자신이 삼천년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뵙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깨달아 확신을 가진 후에 비로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자기 자신은 새하나님 앞에 속히 달려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부터 하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귀는 한사코 새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주위의 인간들을 통하여 방해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경솔한 자는 새하나님을 영접할 만한 자격이 못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만한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받고 돌아오신 새 식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더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 땅에 출현하신 구세주 새하나님이신 성주님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요, 친히 신이시며,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야할 인류의 태양인 것이다. 삼천년성에서 부르고 있는 새 노래(찬송가)에도 “성주님 바라보고 날날이 고하여”라고 함과 같이, 언제나 성주님 앞에 하나도 숨기거나 가리는 일이 없이 날날이 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항상 조금이라도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항상 이슬 은혜를 연결 받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숨기는 것은 상대적인 마귀 사탄의 장난임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야지, 절대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삼천년성에 자기를 전도하여 인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고 성주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니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주님 앞에는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고 모두 성주님과 나 사이로 영적으로 직접 통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존재가 성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과거 전도관 출신들이나 승리제단 출신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예비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성주님께서서는 현재 전도관이나 승리제단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관의 박태선 하나님이나 승리제단의 조희성 해와 주님께서 “알곡은 먼저 튀어나가고 맨 나중까지 콩대에 붙어 있는 것은 쪽정이나 콩각지이기 때문에 결국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우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천년성에는 반대로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쪽정이는 회리바람에 날려 보내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삼천년성에 들어와서 21일 동안의 수련기간을 마치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사람의 생명체질 감별을 해주시고 음식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성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체질식이야말로 박태선 하나님이 “다리를 건너고 강을 건너간 자들에게 강 건너의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지, 강도 건너지 않고 다리도 건너가지 않은 자들에게 강 건너의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라고 말씀하신 그 귀중한 말씀인 것이다. 이 생명 체질식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영생의 학문이요, 구원의 자유율법인 것이다. 따라서 삼천년성에 가서 다시 만나는 엄마가 바로 오늘날 성주님인 것이다. 이는 엄마의 진정한 밥상머리 교육인 것이다. 이는 또한 거룩한 성안에서만 지킬 수 있는 하늘의 자유율법인 것이다.

오늘날 삼천년성 안에서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생명 체질식이 날로 단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때 단계를 높여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사람의 몸이 병들어 죽는 원인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생명체질식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성신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여하시므로 비로소 영(靈)과 육(肉)이 일체(一體)가 되어 사람의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이 이루

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천년성에서 비로소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의 하나님인 박태선 장로님께서 “삼천년성에 가서 엄마하고 다시 만나 영원토록 같이 살자!”라고 새끼손가락 걸면서 간곡하게 당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박태선 하나님께서 단상에 서시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라고 의미심장하게 거듭 찬송을 인도하실 때에 모든 교인들이 감동하여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 후 1984년도부터 빛고을 광주에서 삼천년성에서 처음으로 환석(이현석의 새 이름) 이긴자를 “주님”이라 하지 않고 성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년 후 1986년 5월 이슬성신절에 박태선 하나님께서 “찬양을 성주께 드리어라”라고 찬송을 인도하시면서 삼천년성의 성주님을 찬양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시 만나자고 언약하신 그 하늘나라가 바로 오늘날 새하나님이 거하시는 삼천년성인 것이다. 우리가 천년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중간 2천년성을 거쳐 도착하는 3천년성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그 언약의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이다. 그러므로 삼천년성에 들어왔다가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스스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안에서 한 번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성주님은 백보좌의 심판주요, 인생을 추수하러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회리바람에 날려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주님을 저버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성안에 들어왔다가도 구세주 새하나님이신 성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쭉정이는 스스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쭉정이를 다시 불러들여 알곡과 함께 창고에 들일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알곡은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성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성주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는 그가 비록 성안에서 왕의 반열에는 서지 못했으나, 바깥 세상에서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것이다. 영생하지 못하는 흰옷을 입은 무리의 백성인 것이다.(참조: 묵시록 20~21장) 영생은 오직 거룩한 새 예루살렘 삼천년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 생명체질식에 대하여 》

생명체질식은 인간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나 함부로 지킬 수 없는 하늘의 자유율법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구원의 수만이 지킬 수 있는 구원의 율법이요, 영생의 비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삼천년성 안에 들어와서 구세주 새하나님이신 성주님을 고도로 사랑하고 지극히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성주님의 이끌어 주시는 힘으로 지켜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하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식사법인 것이다.

성주님께서 치과에 검사를 하러 가셨는데, 치과 원장이 하는 말이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60세가 넘으신 분이데, 잇몸이 어린 10대 적 잇몸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놀랄 일입니다.”라고 감탄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귀한 생명체질식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 중 첫째는, 체질식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어려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마다 단계를 점차 끌어올려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럴 때엔 분명하게 음식 조절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바깥세상 사람들은 체질 음식 표만 얻어가지고 가서 혼자서 실천해보려는 사람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그 해결방법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도 현대의학은 생명체질의 이치도 모르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주님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니, 그럴 바엔 오히려 체질식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먹고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 동안 바깥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지만,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성 밖의 사람들에게 생명체질식을 가르쳐줄 수 없는 이유 중 둘째는, 과거에 박태선 장로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길은 가야만 하는 길이야!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여기 말고 다리를 건너가야만 해! 다리를 건너 5리쯤 가면 옛장수의 집이 있어, 그 옛장수 집을 조금 지나서 50리를 돌아돌아 넘어가야 할 고개가 있어! 그 고개를 넘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자들에게 그 강 건너가서

가는 길에 대한 말을 해줄 필요가 있지, 강도 건너가지 않고 다리도 건너가지 않는 자들에게 강 건너의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 !)

그리고 또한 1981년 3월 축복일에 모든 교인들에게 안찰을 하실 때에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삼천년성에 가서 엄마하고 다시 만나 영원토록 같이 살자!”고 간곡하게 당부하셨던 것이다. 이는 위에서 말씀하신,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아름다운 땅이 바로 태초의 하나님(박태선)께서 그토록 가라고 당부하신 바로 그 삼천년성이요, 성주님이 바로 다시 만나는 엄마인 것이다. 그러면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삼천년성에 가서 엄마를 만나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삼천년성에 가서 다시 만나는 인류의 진정한 엄마는 당신의 자식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엄마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삼천년성에 들어와서 왕의 반열에 서서 영생을 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는 엄마의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성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들은 도저히 실천할 수도 없으며, 이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삼천년성 안에서만 지키는 하늘의 자유율법인 것이다.